

# 사설 절세위인의 뜻을 받들어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앞당겨오자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높이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한생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어린시절 38° 선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분렬의 장벽을 일시적인것으로 생각하였지 결코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민족분렬의 참화는 더 커지고 조국통일은 더 어려워진다, 때문에 우리는 력사앞에서, 민족앞에서 책임지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곤 하시었다.

참으로 그이의 한평생은 애국헌신의 열기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한생이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여러차례 최대의 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에도 거룩한 통일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들던 1990년대중엽 한몸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최전방인 판문점에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첩첩한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 굳은 결심을 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운동발전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기어이 끝장낼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뛰어난 예지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대응단으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6.15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채택으로 하여 분렬의 어둠이 질게 드리웠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전변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북남선언들의 채택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묶어세우시고 자주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포용력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남조선의 정계 인사들과 기업가를 비롯한 각계층 인사들과 해외동포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며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통일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해주시었다. 6.15시대에 통일운동이 소수의 운동에서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하여 각계층의 겨레성원들이 대중적으로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된것은 분렬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압도하고 자주통일의 기관차를 힘차게 전진시키려는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이 통일에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나서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범죄적책동을 선군의 힘으로 짓누르시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었으며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었다.

실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끝까지 이룩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밑천이다. 한평생 민족과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아버지장군님께서 겨레에게 안겨주신 통일의 귀중한 라침판이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세월이 흐르고 정세가 어떻게 달라진다 해도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놓지말고 항구적으로 들고나가야 할 기치가 북남공동선언이다. 이 공동선언들에는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서 살아온 북과 남의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단합하고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수 있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적인 방도들이 다 담겨져있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면 화합과 통일이 오고 그것이 리행되지 못할 때 통일의 길에 엄중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게 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 진리이고 심각한 교훈이다. 오늘의 복잡한 북남관계는 이 진리를 더욱 깨우

쳐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미국과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올해 정초부터 그 무슨 《도발》과 《단호한 응징》을 떠들면서 각종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으며 미국과 야합한 《련합실한지훈련》, 《쌍매훈련》 등의 불장난소동을 련일 벌려놓고있다. 그런가하면 3월부터 실시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치르겠다고 호언하며 정세를 각일각 긴장시키고 전쟁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바라지 않는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 참화는 지난 조선전쟁때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막아내고 조선민족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반전평화수호투쟁을 더욱 드세차게 벌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그러나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하려는것이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이고 의지이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야 한다.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모략소동과 심리전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체제통일》의 어리석은 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별의 별 책동을 다하고있다. 지어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주적리행사와 자위적조치들을 터무니없게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대화와 관계개선이 아니라 북남관계 완전과국으로 정세를 몰아가고있다. 이로 인해 북남관계는 6.15이전의 대결시대로 돌아가고 통일을 바라는 조선민족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그 무슨 《신뢰》나, 《통일》이니 하고 낮 간지러운 소리를

하던 남조선집권세력의 반통일대결적정체는 오늘에 와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현실은 온 겨레가 일치단결하여 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분렬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며 력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내외반통일세력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세는 엄혹하고 시련과 난관이 많지만 통일세력이 분렬세력을 라승하고 자주통일의 새봄이 오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의인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이께서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침략전쟁책동을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선군의 위력으로 격파하시며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가고계신다.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원수님께서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절세위인이 계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우리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조선민족이 복락을 누리는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환영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위하여 2월 13일 성대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목란관에 도착하시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주체의 위성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시며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대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존과 권위, 강용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광활한 우주만리에 보란듯이 올려세운 우주정복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 군대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최근 적대세력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 복잡한 정세속에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눈



앞에 두고 나라의 운명과 조국의 존엄을 걸고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할것을 결심한 것은 진짜배기에국자, 우리 당에 충실한 붉은 과학전사들을 굳게 믿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당은 동지들을 믿고 동지들은 당을 굳게 믿는 혈연적인 믿음의 힘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성공이라는 결과를 안아올수 있었다고 하시었다.

우주정복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에 혁명의 길, 자주의 길이였으며 우리의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령옹위전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만리대공의 우주에 최첨단돌파전의 산물, 자강력의 산물인 위성을 쏘올린것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었다.

동지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의 구슬땀은

그대로 연료가 되고 추진력이 되어 주체위성이 0.001mm의 편차도 없이 정확히 우주에 솟구쳐올랐다고 말씀하시었다.

동지들은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의 전투적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온넛과 지혜를 바쳐 싸웠으며 대성공이라는 결과를 안아오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우리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위하였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오늘의 대성공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는 신심과 용기를 주고 우리 조국의 진군을 가로막으려는 적들에게 호된 타격을 가함으로써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를 아로새기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자강력의 기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주체위성은 2월의 봄날하가에 황홀한 비행운을 새기

였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특대사변은 전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심이 안아온 자랑찬 쾌승, 값높은 대승리라고,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반만년민족사에 전무후무한 또 한차례의 위성발사라는 대성공을 안아온 동지들은 주체조선의 장한 영웅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당중앙의 전투적과업을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동지들은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해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인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백두산대국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고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준 동지들에게 다시한번 축하의 인사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현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라고 하시면서 자주, 신군,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시키자면 과학전선이 용을 쓰며 일어나고 주체과학의 신비한 힘이 작용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동지들은 오늘의 대성공을 더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도약대로 삼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총매진하여 앞으로 주체조선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쏘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동지들이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실력전,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줄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주체위성발사의 대성공을 안아온 우리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위하여, 우주정복의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오늘의 승리의 기쁨을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연회참가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대성공적발사를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고 그 성과를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아버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연회에서는 《광명성-4》호의 발사성공을 축하하는 모란봉악단공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 자주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어

《화창한 날씨속에 빨간 주단이 깔려있는 평양비행장의 모습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TV를 지켜보던 모든이들은 전율을 느껴야 했다. 두 수뇌분들의 역사적인 만남은 수십년을 기다려왔던 감격의 최절정이었다.》

《나는 마치 고압전류에 순간적으로 감전된듯 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머리속이 하얗게 지워지는것 같았다. 멍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마 이때의 충격은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을것만 같다.》

민족분열 55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주제89(2000)년 6월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두고 7천만 온 겨레는 이렇게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다.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위업 실현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알린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대응단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대통령일행을 따듯이 맞아주시고 그들이 체류하는 전기간 친리해안의 예지와 넓은 포용력, 숭고한 도덕과 해박한 식견으로 그들과 여러차례 격식없는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성원들과 만나 진행하신 불면불휴

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마침내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핵으로 하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이 탄생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주체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북남삼천리에 민족공조의 대하, 자주통일의 새봄을 불러왔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되고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기고 끊어졌던 북남사이의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으며 북과 남이 국제체육경기대회 개막식에 공동 입장하여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열기를 크게 고조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필승의 선군정치로 6.15공동선언리행에 유리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해주시고 공동선언리행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었다.

뿐만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회담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진행되고 협력과 교류도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함대로 지향되게 하시였으며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의 각계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

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주제96(2007)년 10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또 다시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도 채택발표되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던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천명하시었다.

탁월한 선견지명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6.15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민족번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결렬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리여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최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

취하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고 통일운동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올해의 뜻깊은 신년사에서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를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 등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바치신 한평생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이 있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 숭고한 통일유훈을 받들어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고보니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그이의 로고와 업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일찌기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언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두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민족공동

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신 장군님의 업적은 세월이 가도 정녕 잊을수가 없는것이다. 그래서 장군님이 더욱 그럽고 그이의 유훈을 꽃피워드릴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는 우리들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내외분열주의세력은 대결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민족의 통일지향에 엄중히 도전해나서고있다. 그러나 천출위인이 계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겨레에게 안겨주시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있어 자주통일의 그날은 확정적이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한국철

##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다. 나에게도 지금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위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생각밖에 없는데 무엇때문에 바라지도 않는 동상을 세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민들이 동상을 세울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두고 언제나 마음써오신 장군님께서께서는 생전에 여러차례나 판문점을 찾으시여 통일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앞당겨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진다. 그래서 나는 분계선 지구에 나올 때마다 판문점에 들리곤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분열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겨레에게 통일을 하루빨리 선물로 안겨주시려고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으며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민족의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아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갈 신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 범민련 북측본부도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유훈, 온 겨레의 통일년원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는 환희의 그날을 앞당겨주기 위해 온 겨레와 함께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갈것이다.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봉원익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기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자주의 리념이기때문이다.

민족자주는 민족주체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우리 민

# 우리 민족끼리는 자주통일의 기치

죽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자주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길이라면 외세의존, 외세공조는 민족의 영구분열과 망국의 길이다.

이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의 력사가 새겨주는 철리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려는 만만한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기치로 되는것은 또한 이 리념이 민족의 대단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민족단합의 리념이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특정한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실현할수 없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성취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민족의 힘은 단결에 있다. 민족의 단합이 없이는 북남관계

개선도, 통일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공동의 리익도 지킬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친 민족의 힘은 강하며 그것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떠밀어 나갈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보다 더 클수 있는 없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동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

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피줄, 하나의 민족으로서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단결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6.15통일시대에 우리 겨레가 북남관계에서 이룩한 사변적인 성과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못해낼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시련이 겹쌓이고 정세가

엄혹할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에 바로 겨레가 바라는 자주도 있고 평화도 있으며 통일번영도 있다.

력사는 우리민족끼리리념이 구현될 때에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성과가 이룩되지만 이 리념이 부정될 때에는 통일위업실현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갈야 할것이다.

김대성



#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 꽃피는 나라



약동하는 젊음으로 세기를 주름잡아 비약하는 공화국에 뜻깊은 광명성절이 왔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한 이 시각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한평생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였고 념원이였다. 장군님께서 생전에 늘 자신의 한생을 하나로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우고싶은 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

## 위대한 령도따라 조선은 나아간다

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이 땅위에 강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풍모를 그대로 이으신 백두산형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올해신년사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자위적국방

력강화와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으로 새해의 첫문을 여시고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폭음으로 2016년의 서막을 열어놓으시였다.

TV와 신문을 통하여 주제 104(2015)년 12월 15일 주제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지난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오며 사람들은 반만년민족사에 길이 빛날 특대사변을 안아오신 그이의 자주적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한없는 조국애와 민족애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게 되였다.

지난 2월 7일에는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4》호 발사가 성공하여 자강력으로 승리하는 신군조선의 존엄과 본때를 다시금 시위하였다.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을 갖추고 핵보유국의 전례에 당당히 올라선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은 전체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찾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신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더욱 백방으로 다질데 대하여 하신 연설과 인민군 대련합부대 포사격경기를

몸소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포병무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드세찬 훈련열풍을 일으키고있다.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신 행복의 씨앗들이 오늘은 알찬 열매로 맺어져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고있다.

나라의 북변 백두산기슭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있으며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또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는 자강력제일주의를 추켜들고 올해 1월계획을 초과완수한 자랑을 안고 승리와 영광의 대희장을 향하여 기세좋게 나아가고있다.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우주에 쏘아올린 기세드높이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비약하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 강성조선의 래일을 하루빨리 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의 련속과정이다.

영원한 신군래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속에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은 반드시 일떠서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민족의 환희, 2월의 강산에 넘칩니다

조국과 멀리 떨어진 중국동북의 연결에서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게 되니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언제나 우리 해외동포들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스히 보살펴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이 어찌 세월이 간들 식어질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결을 비롯하여 조선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서 경사스러운 2월명절을 경축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벌어지고있는것도 절세위인에 대한 온 겨레의 다함없는 경하의 물결이라고 봅니다.

## 1

올해의 광명성절은 역사롭게 찾아오지 않았습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퇴성이 터지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우주에 날아오른 경이적인 사변들속에 경사스러운 명절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쁘고 환희로운 광명성절입니다.

지금 금수산태양궁전에 게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민족의 대경사인 수소탄시험의 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 발사는 어머니조국이 2월의 명절에 드리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수소탄의 개발을 보더라도 그 바탕에는 우리 조국을 자위의 핵강국으로 우뚝 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와 업적이 깃들어있습다.

100여년전만 해도 얼마나 수난많은 조선민족이었습니까.

외세의 리권쟁탈의 무대가 되고 종당에는 일제에게 나라마저 송두리채 빼앗겨야 했던 조선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민족이 당하는 가슴아픈 참상이였습니다. 군력이 강하지 못해 백의겨레가 흘린 망국노의 피눈물이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살길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넜습다. 우리 가정도 할아버지대에 정든 고향 백암을 등지고 이곳 길림성에 이주해 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우리 가정의 슬픈사연, 민족의 눈물겨운 수난사를 옛말처럼 자주 듣곤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곡절과 수난했던 아리랑민족의 력사가 어 려오고 언제면 우리 민족도 강국의 주인이 되어 소리치며 살아보게 될가 하는 한가닥 꿈에 눈굽은 찌릿이 젖어들곤 하였습다.

우리 가정, 아니 온 조선민족이 대를 이어 꿈꾸어온 부국강병의 념원, 그것을 꿈아닌 빛나는 현실로 되게 해주신 절세의 애국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이십니다.

지금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2006년 10월 우리 조국에서 첫 지하핵시험을 성공시켰다는 기쁨의 보도가 전파를 타고 온 누리를 진감시키던 그날을.

당시 우리 재중동포사회는 명절분위기였습니다. 집집마다 모여앉으면 우리의 핵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가는줄 몰랐습다.

그때 남조선에서도 반성이 대단했습니다.

《단군이래 최고의 기념비적 쾌거!》

《드디어 조선민족도 핵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 5천년 력사이래 이런 날이 올줄이야.》

《우리 민족이 강대국들의 위협에서 영원히 해방》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백두의 담력으로 세계를 뒤흔드는 용장중의 용장》

남조선의 인터넷홈페이지들엔 련일 실리는 각계층 주민들의 흥분된 목소리들을 전해들으면서 나는 자위의 핵보검으로 민족의 운명과 지위에서 력사적인 전환을 가져오시고 조선민족의 무궁창창할 미래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거치면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울것이 한두가지 아니였지만 고난을 이기며 기어이 만들어낸 자위의 핵역제력입니다.

조선민족이 다시는 제국주의의 비참한 노예가 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존엄과 긍지와 평화와 행복속에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하여 장군님께서 천만고생 다하시며 겨레에게 안겨 주신 민족의 귀중한 만년재보입니다.

나는 조국의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인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를 이따금 조용히 부르곤 합니다.

...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  
 리라  
 ...

그러느라 면 이 노래 마음속으로 부르고 부르시며 낮이나 밤이나 선군장정의 멀고도 험난한 길을 헤쳐가시던 장군님의 숭엄하신 영상이 안겨오고 오성산의 아찔한 칼벼랑, 초도의 세찬 격랑이 눈에 어른거리 가슴을 진정시킬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마련하신 강력한 핵역제력이 있어 우리 겨레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 마음놓고 살고있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위대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군의 길, 초강도강

행군길을 멈추지 않으시였습니다. 그 길에서 지새우신 밤, 만나주신 군인, 인민들이 그 얼마이며 그이의 옷자락을 적신 찬눈비는 또 어떻게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조국인들이 행복의 단장을 잘 때 장군님의 야전차는 동터오는 새벽노을을 이고 험한 령길을 넘고있었고 아이들이 야영소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를 때 장군님 타신 렬차는 온 나라 각지로 고동소리 울리며 쉬임없이 달리였습니다.

내가 조국방문의 나날에 들은데 의하면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우리 함께 발걸음 맞추어 달리고 또 달리자고 하시며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었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글발을 자랑스럽게 새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에 치달아오르고 자위의 핵퇴성이 지심을 뒤흔들며 온 세계에 메아리쳐간 그 격동적인 화폭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떠나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은 이렇게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자위의 핵보유국으로 일떠섰습다. 오늘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에 차서 바라보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아오신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눈물겹게 소중한 이 세상 억만금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 조선민족의 최상의 존엄이고 긍지이며 자랑스러운 백두산대국입니다.

## 2

우리 조국에서 수소탄의 첫 폭음이 울린 2016년 1월 6일은 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운명적인 대사변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에 우리 민족은 수소탄을 보유한 행성의 강대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다. 주석님께서 다 죽었던 우리 민족을 재생시켜 자주적민민의 존엄을 안겨주시고 장군님께서 누구도 다칠수 없게 존엄높은 핵보유민족으로 되게 해주셨다면 김정은원수님시대에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강대한 민족으로 행성에 우뚝 섰습다.

수소탄은 일반 원자탄에 비해 그 위력이 수백배에 달하는 말그대로 최강의 무기로 알려졌습다. 세계의 200여개 나라중에서 이런 수소탄을 가진 나라는 5개 나라뿐입니다.

그처럼 만들기 힘들고 가지기도 어려운, 강대국들만의 영원한 점유물로 인식되어왔던 수소탄이 이제는 조선민족의 수소탄이 된것입니다.

조선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령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적대세력의 항시적인 제재와 봉쇄압박속에 경제와 생활상측면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조선이 핵을 포기하라고 강박하고 위협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에서는 《핵포기》의 회기밭이 아니라 불의와 전횡에 맞서 핵억제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승리의 장쾌한 수소탄폭음이 울리였습니다.

무슨 힘이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의 적대시압살정책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세계의 정치군사지형도를 뒤바꾸어놓으며 어제날의 《약소국》을 수소탄을 보유한 행성의 강국으로 치솟아오르게 한것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뒤흔드는 김정은원수님의 힘입니다. 오늘 온 세계가 지켜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은 핵무기를 휘두르며 온갖 전횡과 침략을 마구 일삼아온 미국도 꿈쩍못하게 다스리는 백승의 힘입니다.

지금껏 인류의 머리에 군림해온 미국은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호령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침략의 대포소리를 울리고 무참히 짓밟아왔습니다.

그 거만하고 횡포무도한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자위의 핵으로 침략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미국의 수족을 잃어맨 영웅의 나라가 조선이고 그 조선을 승리로 이끄는 정의의 태양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하고 강하신 모습을 TV에서 보으면서 우리 해외동포들은 미국에 력사상 처음되는 패전의 수치를 안기신 김일성주석님과 미국을 담력과 지략으로 이기셨던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을 뵈옵는것만 같아 더욱 격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 조국이 첫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날인 1월 6일은 말그대로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종말을 알리는 사변적인 날입니다.

이미전에 일본의 한 시사론평가가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선대수령들의 령활한 군사지략과 담대한 기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반미전면대결전을 이끌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그 어떤 군사적모험도 자기 나라를 종국적멸망으로 몰아갈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고 했듯이 정의의 수소탄시험성공으로 미국에 파멸의 선고를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온 겨레와 세인이 격찬하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신비의 힘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국이 수소탄을 개발해내리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이 성공할수 없다며 갖은 비난을 해왔지만 이번 수소탄시험성공이야말로 탁월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애국의 병진로선이 있기

에 군력은 최대로 강화되고 사회주의문명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도 날에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가는 우리 조국입니다.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였지만 절세위인을 모신 내 조국에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시게 변하는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번 도약, 단번 성공의 쾌승으로 수소탄도 척척 만들어 내는 우리 조국에서는 앞으로 도 세상을 놀래우는 희한한 사변들이 련이어 터져오를것입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은 불가능을 모르시고 화를 복으로 만들어 하시느라 일마다 성공과 기적을 안아오시는 탁월한 정치가, 위인중의 위인이십니다.

이번에 조국에서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성공한것과 관련하여 한 기업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북이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2016년 1월 6일이라는 날자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2016에서 령을 빼면 신통히도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이 된다. 1월 6일이라는 수가들도 나란히 이으면 16일이다.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치가겠는가. 광명성절을 앞두고 선대수령께 가장 큰 선물로 드리고싶은 김정은령도자님의 도덕의리심을 읽을수 있다.》

말을 들으니 정말 신동하였습다. 알려진것처럼 수소탄시험을 2016년 1월 6일에 단행하도록 친필로 최종명령서에 밝혀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한 후 그분께서는 설명절을 맞아 인민무력부를 방문하시였습니다. 그곳에 모셔진 수령님들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동상앞에서 군대의 책임 일군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원수님 가슴에 고패친것은 수령님들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수소탄시험을 성공시키시고 내 나라를 행성에 우뚝 올려세우신데 대한 크나큰 격정과 기쁨이였습니다.

하기에 그로부터 며칠후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에 참석하시어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보유국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핵개발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그토록 대견해하시고 기뻐하실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쓰겁게 말씀하신것 아니겠습니까.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성공의 눈부신 기적이야말로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원수님께서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최대의 경의이고 충정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신문들을 통해 늘 접하고 조국방문의 나날들에 더 깊이 알게 된것이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하나 구상하셔도 장군님의 유훈과 념원부터 생각하시고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으시며 인민들이 복락을 누리게 될 희한한 창조물들을 보시어도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곤 하시느라 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은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으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며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공화국의 존엄과 영광, 민족의 통성번영을 천대만대로 빛내주시려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나가게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이번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도 성공하고 어버이장군님의 생전의 념원, 조국인민들의 오랜 리상과 꿈은 나날이 현실로 되고 천하제일강국의 눈부신 래일이 눈앞에 오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곧 조선민족의 승리이고 강성번영입니다. 우리 겨레가 일구워온 바라는 조국통일도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에서 옵니다.

공화국이 보유한 정의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 온 겨레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민족공동의 보검, 통일조국의 값진 재부입니다.

얼마전 사업차로 연결에 왔던 남조선의 한 교수도 《선군정치를 이어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가 계시어 우리 이남국민이 이라크와 리비아와는 다르게 참혹한 전란을 겪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있으며 머지않아 우리 민족이 잘사는 환희로운 통일세상이 펼쳐질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선군으로 마련한 우리 조국의 강위력한 억제력이 있어 미국의 핵전쟁도발음모를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환희의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도 수소탄을 보유하고 당당한 위성강국이 된 커다란 민족적자긍심을 안고 조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사업에 더욱 매진할것입니다.



# 장 시 민 족 의 강 대 한 힘 무 궁 하 리

김영일

1월의 하늘가에 터져올랐던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  
그 퇴성 2월의 하늘가에 다시 터져올랐는가  
만리대공을 치뿜으며 날아오른  
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  
광명성절을 맞는 뜻깊은 2월에  
또다시 맞이할 특기할 대경사  
은 세계가 바라보는 창공에  
자랑차다 《광명성》-민족의 별이어

뿜어져오르는 눈물  
가슴마다 터질듯 부푸는 이 환희  
핵강국의 위용우에  
우주강국의 위상 과감히 펼친  
열광의 폭풍이 누리를 진감하거니

수소탄의 폭음을 울린 력사의 패자를 두고  
누구나 《장군님!-》  
목이 메여 불렀던 1월의 그날처럼  
위성이 치솟아오른 이 2월에도  
누구나 한결같이 터치는 첫 부름은  
아, 《장군님!-》

누구보다 제일 기쁘시여  
누구보다 제일 자랑스러우시여  
수소탄!  
《광명성-4》호!  
몇번이고 몇번이고 소중한 되뇌이시며  
심중의 걱정 다 터치시었을 장군님이시여

얼마나 좋았으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지구를 뒤흔든 수소탄의 폭음  
그이 기쁘게 들어주시었다면  
불출기를 뿜어 존엄의 비행운 그리며  
우주로 날으는 위성의 모습 보아주시었다면

어이 그러하지 않으랴  
민족의 강대한 힘  
그것은 장군님 필생의 념원  
그이 한생에 맥맥히 굵아쳐흐른  
최대의 리상 최고의 목표였거늘

사무쳐오누나  
핵보유국의 당당한 위상  
하늘에 닿은 민족의 존엄  
오늘의 이 궁지 이 자부 새겨볼수록  
민족을 지켜 민족만대의 번영  
한몸바쳐 열여오신 장군님의 그 생애가

떼놓고 말할수 있으랴  
그이의 한생과 민족이란 그 이름을  
맛으신 찬눈비 그리도 많았고  
걸으신 험한 길 끊었던것은  
우리 겨레 우리 민족 위해서 아니었더나

한평생 품어 안아준 민족  
부어준 그 정과 사랑의 열도  
천백마디 말로써야 어찌 다 헤아리랴만  
천백마디 말없어도 겨레는 안다  
그 열과 정의 무한대한 세계에 높면  
그이의 송고한 뜻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강대한 민족으로!

돌이켜보면 5천년민족사에  
홍망성쇠의 무수한 자욱과 더불어  
피땀 흘린 교훈도 빼지린 사연도 많아  
숙원중의 숙원은 바로  
자기를 지킬 강대한 힘이 아니었던가

그 힘이 없어  
외세의 발굽에 무참히 짓밟혀  
망국노의 운명 살아야 했다  
그 힘을 안라까지 찾고부르며  
이국땅에서까지 선혈을 뿌려야 했다

짓눌려선 못살아  
3.1의 함성 삼천리를 진감하였고  
의병의 칼을 들어 대항도 해보았건만  
침략자의 대포와 총에 갈대처럼 쓰러져야 했다  
망국의 설움 짓뎌으며  
락엽처럼 이역의 광야 헤매어야 했다

세상은 넓고 나라는 많았어도  
그 누구도 구원의 손길 뻗쳐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노예의 눈물 씻어주지 않았거니  
힘이 없는 민족에게 차례진것은  
쓰라린 멸시와 참지 못할 치욕뿐

가지고싶어도 가질수 없었던 힘  
짓밟히면서도 쓰러지면서도  
피절은 절규로 찾고부르던 힘  
말해보자, 어느분이 주시었던가  
민족의 존엄 되찾아주시었던가

외세에게 빼앗긴 이 강토에  
백두산총대로 해방의 날 안아오시고  
민족의 운명에 청청 얽매어있던  
노예의 사슬을 벗겨주시신 수령님  
미제를 쳐부시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조선의 힘을 온 세상에 떨치셨거니

수령님 다져주신 백승의 힘  
수령님 찾아주신 민족의 존엄  
최강의 힘으로 최상의 존엄으로  
더더욱 떨쳐주신분  
아, 그이름은 김정일장군님

런런히 뻗은 산과 들이 말하리  
잠들지 않는 바다와 강들이 전해주리  
민족의 운명 지켜  
겨레의 삶이 터전을 지켜  
힘로역경 수만리 앞장서 헤쳐오신  
아, 위대한 생애 장군님의 한평생을

장군님 걸으셨던 길  
이 2월에 생각깊이 걸어보자  
이름조차 알길없는 령길의 숲도  
조약돌 어루쓸며 지출대는  
깊은 산골 여울물도 전해주는 사연 뜨겁나니

족잡에 드신체로 넘으신 령  
헤어보아 이 땅에 그 몇몇이고  
차디찬 췌기밥 찬바람속에 드시던  
그곳은 또 헤어보아 몇몇이더냐  
젖어든 옷자락 말리시던 모닥불은  
오늘도 어디선가 추억깊이 타오를듯

다시 불러본다 그리움으로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  
위험천만한 그 령 넘어 그 길을 이어  
가시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  
고생도 찬눈비도 달게 맞으셨던가

그것은 힘이였다  
사면팔방으로 달려드는 제국주의떼무리  
겹쳐드는 혹심한 자연재해  
그 암살과 시련의 풍랑을 쳐갈길  
필승의 힘이 장군님 가시는 그 길에 있었다

앉아서서 버틸수 없는 힘  
맥을 놓고서는 이룰수 없는 힘  
다시는 민족이 우리 겨레가  
외세의 발굽에 짓눌리지 않는 힘은  
오직 선군에 있어 장군님 한생 걸으신 길

—노예가 되겠는가  
자주적근위병이 되겠는가

우리처럼 울리던 그이의 음성  
오, 그것은 조선민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민족  
자주로 위상 떨치는 민족으로  
그 이름 떨치시려는 그이의 단호한 선언!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이 노래 부르며 가고가신 선군의 길  
그 선군길에서 민족의 힘  
민족의 강대성이 거세차게 태동하였거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른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불출기 뿜으며 창공으로 솟구치던 날  
우주에 내뿜친 민족의 힘을 두고  
겨레가 터친 감동의 세찬 열파여

힘을 달라고 하늘에 빌던 민족이  
그 하늘에 자기의 힘으로  
첫 위성을 보란듯이 쏘아올렸을 때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격 북받치시여  
눈가에 뜨거운 눈물 지으시던 장군님

아, 그이의 눈물  
우주강국건설의 개척자  
그이께서 지으신 그날의 눈물은  
민족의 존엄 우주에 새겨주신  
절세의 애국자의 행복의 눈물

민족을 위해 겨레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이루신 장군님  
제국주의 핵전쟁광기를 짓누르시며  
단호히 선언하시였거니  
힘에는 힘으로! 핵에는 핵으로!

지금도 어리여온다  
핵보유선언을 온 세상에 알리던  
10여년전의 그 2월이  
오늘의 2월처럼 그때의 2월에도  
온 삼천리가 격동에 뿜어번지지 않았더나

조선이 우리 민족이  
더욱 강대한 조선 더욱 강대한 민족으로  
당당히 등장한 그 2월  
아버이장군님 하시던 그 말씀  
오늘도 인민이 잊지 못해 겨레가 못 잊어

우리 나라가 1905년에는  
망국조약을 강요당했지만  
100년이 지난 2005년에는  
최강국의 존엄을 떨치고있다

오, 힘이 없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외세가 강요한 망국조약에  
시일야방성대곡박에 터칠수 없었던 민족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피절은 하소연을  
무심한 하늘에만 터놓아야 했던 민족

보라, 그 민족이 세기를 넘어  
어떤 최강의 힘 지냈는가를  
100년전 치욕의 세월 디디고  
올라선 존엄의 상상봉 얼마나 높은가를

구태여 말로 터놓지 않으려나  
이 땅에 처음 터져올랐던  
장엄한 핵력성이 그 말 대신하리라  
오, 그 퇴성은 최강을 떨치는 민족의 궁지가  
온 세상을 장쾌하게 뒤흔든 소리

그것은 우리 민족이  
그 누구도 감히 견드릴수 없는  
자주의 기상 존엄의 거세찬 분출로  
덤벼드는 제국주의무리 환복판에  
가차없이 내린 징벌의 불벼락

위성론이 뒤집히고  
제국주의본영들이 화들짝 놀라  
떠들었다 강렬한 《대응》과 《제재》  
조선이 우리 민족이  
핵을 쥐는것을 원치 않는 그 원수들이

허나 몰랐다 그들은  
어제날 변변한 화승총 하나 없어  
쏘면 쓰러져야 했고  
항거를 해도 맨가슴밖에 내뿜지 않았던  
그런 조선민족이 더는 아니라는것을

장군님의 강인담대한 배짱앞에  
핵을 틀어쥔 우리 민족앞에  
꼬리를 사리고 스스로  
백기를 들어야 했던 처참한 몰골  
세계여, 똑똑히 보지 않았더나

밀려드는 전쟁의 불구름속에서  
민족을 지켜 이 땅의 평화를 지켜  
강력한 핵억제력을 마련하신 장군님  
통쾌한 무혈전승 안아온  
그이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인간

지구상에 전쟁의 검은구름 휩쓸고  
동란의 울부짖음 그칠새 없어도  
그이 계시여  
내 나라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렀고  
우리 민족 피난의 길 헤매지 않았거니

무슨 말로 감사드리랴  
크나큰 그 은공 쌓으신 그 업적에  
조국이며 민족이며 력사여  
삼가 큰절을 드리자  
만고의 은인 김정일장군님께

그이는 민족의 힘  
민족이 념원해마지 않는 강대성의 상징  
지구상을 더럽히는 제국주의 횡포도  
어쩔수 없이 무릎꿇어야 하는  
정의의 장군! 백전로장!

장군님 주신 민족의 강대함  
오늘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거니  
새해의 장엄한 서막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여제기신  
오, 그이름은 김정은원수님

좋은 일 기쁜 일 하나 생겨도  
장군님 생각으로 가슴 적시던 그이  
더 말해 무얼하랴  
력사의 대장거 수소탄의 폭음을 울린  
그날엔 더더욱 장군님 생각 몸시도 사무쳤음을

사람들이여, 겨레여 아는가  
수소탄시험의 최종명령서에  
그이 한자한자 친필을 써가실 때  
그 글발은 장군님께 전하고싶으신  
기쁨의 편지와도 같은것이였음을

아, 원수님 심중에 뿜어빈진  
그리움의 그 용암이 터쳐올렸는가  
지구를 지심깊이 뒤흔들며  
장쾌하게 터져오른 수소탄의 폭음이여  
세계를 뒤흔린 민족의 역센 기개여

(들으십니까, 장군님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이 성공하였습니다  
조선이 최강의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장군님 계시는 곳  
금수산태양궁전 우러러  
심중의 걱정 경건히 아뢰이신 원수님  
위대한 령장께 위대한 령장이 드린  
충정의 승전보고여!

정녕 수소탄의 폭음  
이는 장군님 평생 걸어오신 선군의 길  
그 길우에 삼가 터뜨려드린  
환희의 축포성은 아니였더나  
민족의 존엄 만대에 떨쳐가신  
그 위업에 드린 경모의 찬가 아니였더나

제국주의 핵무기독점에 파렬구를 낸  
민족의 더없는 보검 수소탄  
그 폭음 휘감아 그 열풍 불길로 뿜어  
보라, 오늘은 《광명성-4》호  
대지를 박차고 창공에 솟아올랐다

한가정에도 경사에 경사 겹치면  
며칠밥 두고도 다 얘기 못한다 했다  
한 민족 한 나라에 있어서도  
특기할 사변 이루고저 한다면  
세기가 필요라 했다

허나 1월에서 2월까지  
세계를 진동하는 력사의 대장거를  
련이어 이루신 걸출한 위인  
오, 조선민족의 강대성을  
지구우에 우주에 쓰신 김정은원수님

끝없이 높은 우주의 한끝에  
억척불변의 자리길을 새기는 위성  
오, 《광명성-4》호 너는  
세계를 굽어보는 민족의 눈  
세계가 우러르는 민족존엄의 높이

수소탄의 폭풍에 열이 나가고  
미처 정신차릴새도 없이  
위성의 불출기에 혼이 뻗긴 일간이들  
실컷 《제재》와 《대응》의 나발 불어보라

똑똑히 경고하노니  
허둥대며 날치는 불나비들아  
온갖 발악과 도전 단매에 처갈기며  
조선은 변함없이 노도쳐가리라  
불굴의 기상 더 높이 떨쳐가리라

부국강병 바라던 민족의 숙원 이룬  
민족의 더없는 경사  
더욱 강대해지리라  
경애하는 원수님 모시여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조선민족의 그 힘 그 강대성은

수소탄의 장엄한 퇴성으로  
인공지구위성의 통쾌한 퇴성으로  
민족존엄을 떨친 조선민족  
승리와 영광의 포성 끝없이 울리며  
최후승리의 그날 앞당겨오려니

2월의 하늘아래서 겨레는 본다  
민족의 강대한 힘으로 기여이 일떠세울  
김정은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오, 원수님 높이 모셔 그이가 계시여  
민족의 힘 무궁토록 강대하리라